

6 기고문

모두의 졸업, 새로운 시작으로

김 경 민

국제학 2017
전 대학주보 편집장



“졸업 축하해”

학위수여식이 열린 지난 15일, 제법 쌀쌀한 날씨 속에서 수백 명이 넘는 학사모와 이들을 축하하는 친지들로 사색의 광장은 모처럼 북새통을 이뤘다. 학보사 기자로 여러 차례 졸업 현장을 취재했지만, 이날 처럼 사람이 많았던 적은 없었다. 필자 역시 경희에서의 마지막을 기념하기 위해 포토존 뒤로 끝없이 놓인 행렬에 합류했다.

줄 사이엔 낯익은 얼굴이 눈에 띄었다. 5년 만에 마주한 후배다. ‘줌(Zoom)’에서 종종 만나서인지 그를 알아보는 데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다만 코로나19로 떨어진 거리만큼이나 어색해진 탓일까, 그에게 말을 건네는 것은 제법 용기가 필요했다. 오랜만이라는 필자의 말에 후배 역시 “그래도 얼굴은 보고 졸업한다”며 화답했다.

“아태(국제학관)는 달라진 게 없네” 그는 졸업을 맞아 2019년 이후 처음으로 캠퍼스를 찾았다고 했다. 교환학생을 다녀오니 비대면 수업으로 전환돼 줄곧 고향에서만 지낸 탓이다. 그의 얼굴엔 다시 찾은 캠퍼스에 대한 반가움과 동시에 정든 캠퍼스를 떠나야 하는 아쉬움이 보이는 듯했다.

거의 두 시간을 기다린 끝에 포토존 앞에 설 수 있었다. 대학주보의 일원으로 누빈 교정에 대한 미련을 감추기 어려웠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다시금 일상으로 돌아온 캠퍼스에 한결 마음이 가뭇해졌다.

학위수여식이 재개된 것은 2019년 8월 이후 42개월 만이다. 지난 학기부터 전면 대면 수업으로 복귀한 데 이어 실내 마스크 지침도 해제되면서 그동안 중단됐던 대면 행사도 가능해졌다. 이번 학위수여식은 진정한 ‘일상으로의 복귀’의 출발점인 셈이다.

이날 졸업은 비단 학생만의 것이 아니었다. 코로나19로부터 경희 구성원 모두의 졸업이기도 했다. 대면을 경험했던 재학생에게나 대학에 첫발을 들이는 신입생에게나 벅찼던 캠퍼스는 새로운 설렘으로 다가올 것이다. 이들은 캠퍼스 안에서 청춘을 다시금 향유할 수 있을 것이다.



사색의 광장 포토존에서 사진을 찍기 위해 졸업생들이 줄을 서며 기다리고 있다.

(사진=서세종 기자)

미증유의 팬데믹, 대학 공동체의 회복

“소문대로 캠퍼스가 이쁘네요” 편집장으로 재직하던 지난해 봄, 첫 출근을 한 20학번 기자가 건넨 말이었다. 온라인 수업이 노멀이 된 ‘비대면 세대’에게 학교는 실체가 아닌 무형의 관념이었다. 강의실이 아닌 카페와 집에서 수업을 듣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었다.

일시적일 줄 알았던 코로나19는 끈질긴 생명력으로 버티고 살아남았다. 코로나19가 건재할수록 대학이라는 견고한 공동체를 묶어왔던 고리는 느슨해졌다. 학내 문화가 단절되며 학생 간 유대는 얼어졌고, 준비되지 않은 비대면 수업은 낮은 교육의 질로 학교와 학생 사이 신뢰도 무너뜨렸다. 이는 대학 공동체의 가장 바깥에 있는 지역 사회에도 전이됐다. 취재를 위해 만난 서울캠퍼스 생활협동조합과 동대문1 버스, 국제캠퍼스 마을의 상인들은 학생들의 부재로 나날이 위태로운 삶을 경험해야 했다.

그러나 비대면 수업이 안정되고 빈 캠퍼스가 점차 학생들로 채워지

면서 대학은 코로나 팬데믹에 적응해나갔다. 학내 동아리 활동이 재개됐고 지역 상인들도 한숨을 돌렸다. 사라졌던 일상을 되찾아갈수록 대학 공동체의 고리도 조금씩 다시 견고해졌다. 그리고 긴 터널 끝에 우리는 마침내 코로나19로부터 졸업을 맞이하게 됐다. 물론 비대면 학기가 대부분이었던 학생들에게 학교는 여전히 어색한 존재다. 대학 공동체의 완전한 회복은 아직 요원하다. 그렇지만 모두 머지않아 그들의 자리를 찾을 것이다. 코로나19에도 학내 자치가 무너지지 않고 명맥을 이었던 것처럼 말이다.

졸업을 넘어, 새로운 시대 열어야

전대미문의 팬데믹은 마침표를 찍었지만, 더욱 다양하고 급격해지는 변화는 학교에 큰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다. 학내 사회에는 대화와 이해가 아닌 혐오가 그 자리를 대체하고 있다. 논리적인 에세이도 작성할 수 있는 챗GPT의 등장은 학생들의 사유를 대신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변화에 따라 인간성과 창의성을 함양할 수 있는 교육의 중요성

은 더 강조되고 있다. 그러나 학교는 여전히 기존의 방식에 안주하고 있는 듯하다.

타학교는 급락제, 절대평가 도입 등 유연한 학사제도를 실시하는 추세지만, 우리학교는 여전히 ‘줄 세우기’식 성적평가를 고집한다. 융복합 제도는 강의가 부족해 유명무실한 제도에 그치고 있다. 대다수의 비대면 수업은 토론보다도 지식 전달을 위한 주입식 교육에 가깝다. 학교는 미래대학을 위한 혁신을 강조하지만, 정작 구시대적 제도를 유지하기 급급해 새로운 교육적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 것이다.

졸업은 새로운 길로 나아가는 과정이다. 그만큼 두렵고 어려운 것이지만 발전을 위해선 필요한 길이다. 다양한 교육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선 구태를 과감히 벗어내야 한다. 이를 통해야만 학교는 우리 사회와 학생들이 필요로 하는 교육적 성취를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코로나19로부터의 졸업을 고한 지금, 학교의 새로운 도전이 성공으로 이어지길 같은 졸업자로서 진심으로 응원한다.

“
이날 졸업은 비단
학생만의 것이 아니었다.
코로나19로부터
경희 구성원 모두의
졸업이기도 했다.”

”